

국어 영역

I.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답률: 50.60% / 15위)

[작문 과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를 바탕으로 글을 써 보자.

[학생의 초고]

책장에 꽂혀 있던 『자전거 풍경』을 읽다가, 문득 자전거가 타고 싶어졌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자전거의 묵은 먼지를 대충 털어내고 ㉠/현관으로 옮겼다. 그 모습을 본 형은 한동안 타지 않던 자전거니까 브레이크, 체인, 타이어 공기압 등을 점검하고 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 형에 말을 듣는 등 마는 등 하며 집을 휩 나섰다. 책의 작가처럼 혼자서 10km 떨어진 곳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 보기로 목표를 세운 후, 바로 출발했다. ㉢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이 줄어들어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동참할 수 있다. 집 근처의 평탄한 길은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데 10분쯤 지난 뒤부터, 경사가 급하지도 않은데 자전거가 느려졌고, 자꾸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났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자전거를 멈추고 살펴보니, 이미 바퀴에 바람이 빠져 있었고, 체인까지 느슨해져 있었다. 결국 탈 수 없게 된 자전거를 끌고 집으로 오는 길은 유난히 멀게만 느껴졌다.

돌아오는 길에 작년 교지 편집부 활동이 떠올랐다. '사회적 쟁점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라는 기획에 ㉣ 결맞은 기사를 써 보겠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설문 조사를 하려고 할 때, 동아리 선배는 SNS로 설문 조사를 할 때는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내 계정의 방문자 수가 적지 않다고 자랑을 늘어놓으며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마감 기한이 가까워져 가는데도 설문 참여 인원은 늘지 않고 장난 댓글만 있어서 상처를 받았다. 결국 시간에 쫓겨 설문 조사를 ㉤ 마무리시키지 못하고 어설픈 기사를 쓰고 말았다. 그때와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는 생각에 아쉬웠다.

왜 나는 비슷한 실수를 또 했을까 생각해 보았다. 그동안의 내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 ① ㉠: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자전거를'을 추가해야겠어.
- ② ㉡: 조사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형의'로 고쳐야겠어.
- ③ ㉢: 글의 흐름과 어긋나는 문장이므로 삭제해야겠어.
- ④ ㉣: 어문 규범에 어긋나므로 '결맞는'으로 고쳐야겠어.
- ⑤ ㉤: 불필요한 사동 표현이므로 '마무리하지'로 고쳐야겠어.

[2~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반모음과 관련된 대표적인 음운 현상으로 '반모음 첨가'와 '반모음화'가 있다. 현대 국어에서 반모음 첨가는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일어난다. 어간 '피-'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 '피어'가 [피어]로 소리 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때 어미에는 'ㅣ'계 반모음인 'ㅣ'가 첨가된다. 어미 '-어'에 'ㅣ'가 첨가되어 '되어[되어]', '취어[취어]'로 발음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어간이 'ㅣ, ㅁ, ㅂ'로 끝날 때 어미에 반모음 'ㅣ'가 첨가되어 발음되는 경우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만 표기할 때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형태로 해야 한다.

한편 '피어'는 [피:]로 발음되기도 한다. '피 + 어 → [피:]'의 경우처럼 두 개의 단모음이 나란히 놓일 때 하나의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는 음운 현상을 반모음화라고 부른다. 반모음화는 반모음과 성질이 비슷한 단모음에 적용되는 것으로, [피:]의 경우 단모음 'ㅣ'가 소리가 유사한 반모음 'ㅣ'로 교체된 것이다. [피:]와 같이 반모음화가 일어난 경우도 규범상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15세기 국어 자료에서도 반모음 첨가나 반모음화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찾을 수 있다. 15세기에는 표음적 표기를 지향했기 때문에 문헌의 표기 상태를 통해 당시의 음운 현상을 추론할 수 있는데, 15세기 국어 자료에서 반모음 첨가나 반모음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표기들이 관찰되는 것이다. 어간 '쉬-'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 '쉬어'로 표기된 사례나 어간 '호리-'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 '호리어'로 표기된 것은 반모음 첨가가 일어난 사례로 생각된다. 여기서 '쉬어'는 현대 국어의 [피어]와는 다른 음운 환경에서 반모음 첨가가 일어난 것인데, 15세기에는 'ㅂ' 표기가 'ㅂ'와 'ㅣ'가 결합한 이중 모음을 나타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ㅣ, ㅁ, ㅂ, ㅂ, ㅂ' 표기도 'ㅂ'와 마찬가지로 이중 모음을 나타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쉬어'는 ㉠ 'ㅣ, ㅁ, ㅂ, ㅂ, ㅂ'가 이중 모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경우 반모음 'ㅣ' 뒤에서 일어난 반모음 첨가의 사례인 것이다. 이와 달리 어간 '쑤미-'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 '쑤머'로 표기된 경우는 현대 국어의 [피어]처럼 ㉡ 어간이 'ㅣ'로 끝나는 용언에서 일어난 반모음화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5세기 국어에서 체언 '바' 뒤에 주격 조사 '이'가 붙을 때 '배'로 표기된 사례도 반모음화로 설명할 수 있다.

* 표음적 표기: 발음 형태대로 적는 표기 방식.

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답률: 54.61% / 12위)

- ① 현대 국어에서 ‘피어’를 [피:]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 ② 현대 국어에서 ‘피어’를 [피:]로 발음할 때는 어간의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된다.
- ③ 현대 국어에서 ‘피어’에 반모음 첨가가 일어나도 ‘피여’라고 적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15세기 국어의 ‘ㅍ’ 표기는 단모음 ‘ㅍ’과 반모음 ‘ㅍ’이 결합한 이중 모음을 나타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 ⑤ 15세기 국어의 체언 ‘바’에 주격 조사 ‘이’가 붙어 ‘배’로 표기된 사례에서는 체언의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보기>의 ㉠~㉤ 중 윗글의 ㉡과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오답률: 58.58% / 10위)

15세기 국어 자료 (현대어 풀이)		밑줄 친 부분의 음운 변동 과정
㉠ 내 이를 爲嵬ᄃᆡ야 (내가 이를 위하여)	나 + 이 → 내	
수비 ㉡ 니겨 (쉽게 익혀)	니기 + 어 → 니겨	
빛 바다으로 ㉢ 기어 (배의 바닥으로 기어)	기 + 어 → 기어	
싸해 ㉣ 디여 (땅에 거꾸러져)	디 + 어 → 디여	

	㉡	㉢
①	b	a
②	c	b
③	c	d
④	d	a
⑤	d	c

4. <보기>의 탐구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만 고른 것은?

(오답률: 51.65% / 13위)

[탐구 과제]

다음을 참고하여 [탐구 자료] ㉠~㉣을 [A], [B]로 구분하고, 그렇게 구분한 근거를 적어 보자.

어근에 파생 접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가 형성될 때 [A] 품사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B] 품사가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명사 ‘마음’에 접사 ‘-씨’가 결합하여 ‘마음씨’가 될 때는 품사가 바뀌지 않지만, 형용사 ‘넓다’의 어근 ‘넓-’에 접사 ‘-이’가 결합하여 ‘넓이’가 될 때는 품사가 명사로 바뀐다.

[탐구 자료]

- 예술에 대한 안목을 ㉠ 높이다.
- 그는 모자를 ㉡ 깊이 눌러썼다.
- 오랫동안 ㉢ 딸꾹질이 멈추지 않았다.
- 그런 일은 ㉣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다.

[탐구 결과]

탐구 자료	구분	근거	
㉠	[B]	형용사 ‘높다’의 어근 ‘높-’에 접사 ‘-이’가 결합하여 형용사가 됨.	... ㉠
㉡	[A]	형용사 ‘깊다’의 어근 ‘깊-’에 접사 ‘-이’가 결합하여 명사가 됨.	... ㉡
㉢	[A]	부사 ‘딸꾹’에 접사 ‘-질’이 결합하여 명사가 됨.	... ㉢
㉣	[B]	부사 ‘일찍’에 접사 ‘-이’가 결합하여 부사가 됨.	... ㉣

- ① a, b
- ② a, d
- ③ b, c
- ④ b, d
- ⑤ c, d

5.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답률: 63.95% / 5위)

< 보 기 >

학 생: 한 문장 안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문장을 홑문장,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겹문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따뜻한 차를 마셨다.’라는 문장의 경우 주어 ‘나는’과 서술어 ‘마셨다’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왜 겹문장인가요?

선생님: ‘나는 따뜻한 차를 마셨다.’라는 문장은 겹문장으로,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야. 관형절 ‘따뜻한’의 주어가 관형절이 수식하는 명사 ‘차’와 중복되어 생략된 것이지. 이처럼 ㉠ 한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관형절로 안길 때 두 문장에 중복된 단어가 있으면, 관형절에서 그 단어가 포함된 문장 성분이 생략되기도 한다.

- ① 그녀는 그가 여행을 간 사실을 몰랐다.
- ② 내가 사는 마을은 무척이나 아름답다.
- ③ 그는 책장에 있던 소설책을 꺼냈다.
- ④ 나는 동생이 먹을 딸기를 씻었다.
- ⑤ 골짜기에 흐르는 물이 깨끗하다.

[6 ~ 2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누군가 자신이 불행한 일을 겪었다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그에게 동정심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 자신의 이야기가 전부 꾸며낸 것이라고 말한다면, 너는 그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감정은 그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이나 사건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허구임이 분명한 공포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 괴물과 그 괴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허구적 사건을 보면서 공포를 느끼는 현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래드포드는 허구적 인물과 사건에 대해 감정 반응을 보이는 현상을 ‘허구의 역설’이라 규정하고, 다음 세 가지 전제를 제시하였다.

- 전제 1. 우리는 존재한다고 믿는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 전제 2. 우리는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 전제 3. 우리는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 이 세 가지 전제가 동시에 참일 수 없다는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중 일부를 부정하는 것이다. 래드포드는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믿음 없이 허구에 의해서도 감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그 감정은 존재에 대한 믿음이 결여된 것이므로 비합리적이라고 하였다. 이후 학자들은 허구에서 비롯된 감정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믿음이나 생각과 같은 인지적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논의를 전개해 왔다.

환영론에서는 사람들이 허구를 감상하는 동안 허구에 몰입

하여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사건이나 인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환영에 빠져 감정 반응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월턴과 캐럴은 공포 영화의 관객이 영화를 감상하는 동안에도 영화가 허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관객이 영화 속 괴물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공포로 인해 영화관에서 도망을 가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이런 점에서 월턴과 캐럴은, 환영론은 허구에서 느끼는 감정을 설명하는 타당한 이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월턴은 관객이 허구의 세계에 빠져드는 현상을 상상의 인물과 세계에 대해 ‘믿는 체하기’ 놀이를 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믿는 체하기란, 어린아이들이 소도구를 가지고 노는 소꿉장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실제 사물을 가지고 하는 일종의 상상하기이다. 공포 영화를 보는 관객은 영화를 소도구로 하는 믿는 체하기 놀이에 참여하는 중이고, 관객의 감정 반응은 허구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기의 결과인 것이다. 이때 괴물은 상상의 세계 안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이다. 다만 허구적 대상에서 비롯된 감정은 상상의 세계에서만 성립하는 것일 뿐, 대상이 실제 세계에 존재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월턴은 허구를 감상할 때 유발되는 감정을 ‘유사 감정’이라고 하였다.

캐럴은 생각도 감정을 유발하는 인지적 요소라고 하면서 사고 이론을 전개하였다. 사고 이론은 허구를 감상하는 사람은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 자체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생각’에 반응한다고 보았다. 마음속에서 명제가 참임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믿음이라면, 명제를 그저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생각이다. 캐럴은 생각을 품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유발될 수 있다고 보았다. 괴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믿음 없이 괴물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공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등장한 감각믿음 이론은 영화가 주는 감각 자극에 주목하여, 믿음을 ‘중심믿음’과 ‘감각믿음’으로 구분하였다. 중심믿음은 추론적 사고와 기억 등에 의해 만들어지는 믿음을, 감각믿음은 오로지 감각 경험에 의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믿음을 말한다. 건물이 불타는 영화의 장면을 보면 ‘건물에 불이 났다.’라는 감각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긴다는 것이다. 감각믿음 이론에서는 관객이 허구인 영화의 내용을 인지적으로는 사실이라고 믿지 않지만 감각적으로는 사실이라고 믿고 감정 반응을 한다고 보았다. 공포 영화를 보는 관객 역시 감각 경험에 의해 괴물의 존재를 경험하고 공포를 느끼는데, 이러한 감각 경험이 괴물은 허구적 대상이라는 인지적 판단에 의해 억제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감각믿음 이론은 관객이 감각 경험에 의해 영화 속 괴물이 존재한다고 믿으면서도 괴물은 허구적 대상이라는 중심믿음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허구의 감상과 그에 따른 감정 발생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허구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 허구에 대해 감정 반응을 보이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공포 영화를 보는 관객의 공포가 인지적 경험과 감각적 경험의 통합에서 비롯된다는 최근의 논의는 영화 제작 시 공포를 주는 대상의 존재감이나 위협감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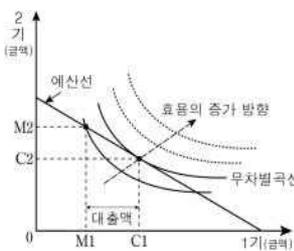
6. ㉔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답률: 57.61% / 11위)

- 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 감정을 느끼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 ② 대상이 존재한다는 믿음에서 유발된 감정은 해당 감정과 관련된 행동을 촉발하기 때문이다.
- ③ 허구에서 느끼는 감정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과 사건에서 느끼는 감정과 다르기 때문이다.
- ④ 감정을 인지적 경험과 감각적 경험이 통합된 결과로 설명할 때 이론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 ⑤ 사람들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허구에 대해서는 '믿는 체하기' 놀이처럼 생각하여 감정 반응을 보이지 때문이다.

[7 ~ 9]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소비를 할 때 벌어들인 소득 전부를 지출하지 않고 일부를 저축하기도 하고, 대출을 받아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보다 많이 지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적금에 가입해 미래에 있을 지출에 대비하거나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여러 해에 걸쳐 대출금과 이자를 ㉑ 상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소비는 여러 기간에 걸친 자금의 흐름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저축과 대출 등의 금융 행위와 그것의 수익과 비용을 결정하는 이자율은 소비 계획의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이자율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2기간 소비 모형'을 가정하자. 가상의 소비자 K는 1기와 2기의 두 기간만 생존하며, 1기와 2기에 각각 소득 M_1 과 M_2 를 얻는다. 이때 1기 소비 지출액과 2기 소비 지출액의 합은 K가 전 기간에 걸쳐 벌어들일 총소득을 넘어설 수 없다. 또한 소비 지출액이 증가할수록 효용은 증가하며, K는 한 시기의 소비 지출액만 지나치게 많은 것보다 각 시기의 소비 지출액이 균등한 것을 ㉒ 선호한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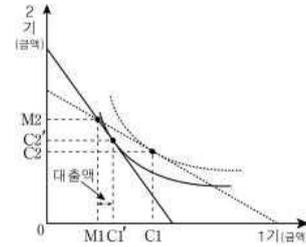
예를 들어, K가 1기에 r 의 이자율로 100만 원을 빌린다면 1기에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은 100만 원만큼 늘어나지만, 반대로 2기에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은 $(1+r) \times 100$ 만 원만큼 줄어든다. 따라서 이자율이 r 인 경우 예산선은 기울기가 $-(1+r)$ 인, 초기 부존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이때 초기 부존점 왼쪽의 예산선은 저축할 때, 오른쪽의 예산선은 돈을 빌릴 때 선택 가능한 소비 계획들을 의미한다.

<그림 1>의 무차별곡선은 효용이 동일한 K의 소비 계획들을 연결한 선으로, 볼록한 모양의 우하향 곡선으로 나타난다.

이때 좌측 아래의 무차별곡선보다 우측 위의 무차별곡선일수록 더 높은 효용을 나타내는데, 이는 매 시기의 소비가 많을수록 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즉 (M_1, M_2) 를 지나는 무차별곡선보다 (C_1, C_2) 를 지나는 무차별곡선이 우측 위에 나타나므로, (M_1, M_2) 에 비해 (C_1, C_2) 가 효용이 더 높은 소비 계획이다. 이는 (C_1, C_2) 의 매 시기 소비 지출액이 (M_1, M_2) 에 비해 더 ㉓ 균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K는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지점인 (C_1, C_2) 에서 최적 소비 계획을 결정한다. 즉 (C_1, C_2) 를 ㉔ 제외한 예산선상의 다른 소비 계획들과 예산선 아래쪽의 소비 계획들은 (C_1, C_2) 보다 효용이 작기 때문에 선택되지 않으며, 예산선 위쪽의 소비 계획들은 K의 총소득 범위를 넘어가므로 더 효용이 높지만 선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K는 $(C_1 - M_1)$ 을 대출하여 (C_1, C_2) 의 소비 계획을 선택한다.

이제 이자율 변화가 K의 소비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자율이 상승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자율의 기울기는 $-(1+r)$ 이므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변화한다. 따라서 이자율 상승 시 예산선은 초기 부존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림 2>

<그림 2>는 이자율 상승에 따른 K의 최적 소비 계획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지점이 변화한 것을 통해 K는 이자율이 상승하면 1기 소비 지출액과 대출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최적 소비 계획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가 최적 소비 계획을 바꾼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이유는 ㉕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 2기 소비에 대한 1기 소비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K는 2기 소비를 늘리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한 1기 소비를 줄인다. 이렇게 1기와 2기 소비의 상대 가치 변화로 인해 최적 소비 계획이 변하는 효과를 대체효과라고 한다.

두 번째 이유는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상환해야 할 대출 이자가 늘어 K의 총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소득 감소에 따라 K는 1기 소비 지출액과 2기 소비 지출액을 모두 줄이는 방향으로 최적 소비 계획을 변경한다. 이렇게 총소득 변화에 따라 최적 소비 계획이 변하는 효과를 소득효과라고 한다.

따라서 이자율이 상승한 경우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인해 K는 1기 소비 지출액을 줄인다. 2기 소비 지출액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상충되므로 각 효과의 상대적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림 2>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커서 2기 소비 지출액이 증가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이처럼 2기간 소비 모형을 통해 이자율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가 소비를 결정하는 데 있어, 현재의 소득만이 아니라 미래에 자신이 벌 것으로 예상하는 소득과 두 시기를 연결하는 매개 변수인 이자율을 고려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효용: 소비자가 소비 행위를 통해 얻는 만족을 수치로 나타낸 것.
* 초기 부존점: 저축이나 대출 등 금융 행위가 불가능할 때의 소비 계획.

7. <그림 1>에 제시된 K의 최적 소비 계획(㉠)과 <그림 2>에 제시된 K의 최적 소비 계획(㉡)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답률: 63.02% / 6위)

- ① ㉠은 <그림 1>의 예산선에서 K의 효용을 가장 크게 하는 소비 계획이다.
- ② ㉠은 <그림 1>의 초기 부존점에 비해 각 시기의 소비 지출액이 보다 균등한 소비 계획이다.
- ③ ㉠을 지나는 무차별곡선은, ㉡를 제외한 <그림 1>의 예산선의 다른 소비 계획을 지나는 무차별곡선들보다 우측 위에 존재한다.
- ④ ㉠에 비해 ㉡의 2기 소비 지출액이 큰 것은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큰 경우를 가정했기 때문이다.
- ⑤ ㉠과 ㉡에서의 K의 대출액의 차이는 ㉠과 ㉡에서의 1기 소비 지출액의 차이보다 작다.

8. <보기>를 참고하여 ㉠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답률: 80.54% / 1위)

< 보 기 >

이자율이 r인 경우 현 시기(1기) 100만 원의 가치는 다음 시기(2기)의 $(1+r) \times 100$ 만 원과 같은 가치를 지닌다. 이를 역으로 보면 다음 시기의 $(1+r) \times 100$ 만 원은 현 시기 100만 원의 가치와 같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미래의 특정 금액의 가치는 이자율을 매개로 현재 가치로 환산할 수 있다. 이때 현재 가치란 어떤 금액이 현재 지니는 가치를 말한다.

- ①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1기 소비 지출액과 동일한 2기 소비 지출액의 현재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 ②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1기 소비 지출액과 동일한 2기 소비 지출액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 ③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1기에 상환해야 하는 대출액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 ④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1기 소비 지출액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 ⑤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1기 소비 지출액의 현재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9. <보기>에 제시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오답률: 77.89% / 2위)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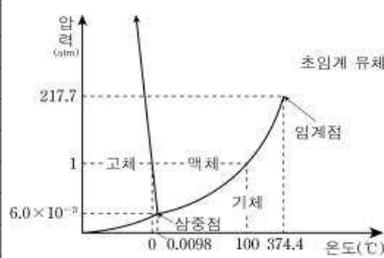
갑국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책 발표로 인해 갑국의 모든 소비자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갑국 정부는 모든 소비자가 2기간 소비 모형의 모든 가정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 이자율은 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단,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 다른 조건의 변화는 없다.)

- ① 보조금 지급 이전인 올해에는 소비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갑국 정부는 예상할 것이다.
- ② 보조금 지급은 대체효과는 일으키지 않고 소득효과만 일으킬 것으로 갑국 정부는 예상할 것이다.
- ③ 모든 소비자가 내년에 지급받을 보조금만큼의 금액을 올해 모두 소비할 것으로 갑국 정부는 예상할 것이다.
- ④ 소비자의 저축액과 대출액에 따라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소비의 증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갑국 정부는 예상할 것이다.
- 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와 상대적 차이에 의해 내년 소비의 증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갑국 정부는 예상할 것이다.

[10 ~ 1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물질은 여러 가지 다른 상(phase)으로 ㉠ 존재할 수 있다. 물질의 상이란 화학적 조성은 물론 물리적 상태가 전체적으로 균질한 물질의 형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고체, 액체, 기체로 ㉡ 구분된다. 고체는 일정한 부피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각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결합되어 서로 고정된 상태이다. 액체는 일정한 부피를 가지나 모양이 일정하지는 않으며,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 간 인력이 분자 위치를 고정할 만큼 강하지 못하여 분자가 액체 내부를 무질서하게 돌아다니는 상태이다. 기체는 부피와 모양이 모두 일정하지 않으며,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 간 인력이 매우 작은 편으로 기체의 분자 간 평균적인 거리는 고체나 액체일 경우에 비해 매우 먼 상태이다.

물질은 압력과 온도 조건의 변화에 따라 다른 상으로 변할 수 있다. 화학적 조성의 변화는 ㉢ 수반되지 않으면서 물질의 상이 전환되는 현상을 상변화(phase change)라 하며, 압력은 동일하지만 온도가 더 높은 조건에서 존재하는 상일 때의 물질을 높은 상 물질이라고 한다. 이러한 모든 상변화에서는 물질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일어나는 특징이 있다.



상평형 그림(phase diagram)은 닫힌계*에서 압력과 온도 조건의 변화에 따른 물질의 상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다. 아래의 <그림>은 물의 상평형 그림으로, 압력과 온도 조건에 따른 물의 상을 보여

준다. 상평형 그림에서 상과 상 사이의 선들을 상 경계라고 하는데, 선의 각 점은 두 상이 평형을 이루는 압력과 온도 조건을 나타내며, 상 경계는 두 상이 평형을 이루는 압력과 온도 조건의 집합이 된다. 상평형 그림에서 고체상과 액체상이 평형을 이루는 조건을 용해 곡선, 기체상과 고체상이 평형을 이루는 조건을 승화 곡선, 기체상과 액체상이 평형을 이루는 조건을 증기 압력 곡선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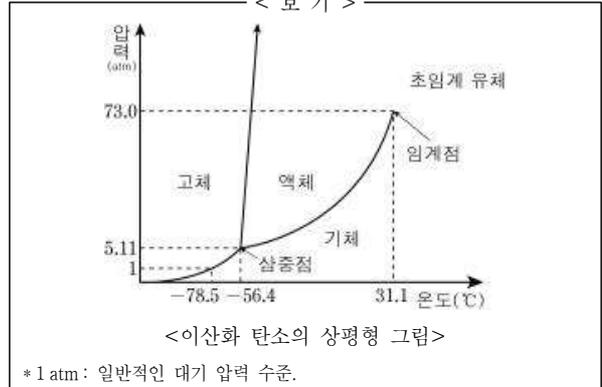
단한계에서 기체상과 액체상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에 대해 설명해 보자. 액체가 기체로 상이 전환되는 것은, 같은 온도에서도 액체의 분자가 각각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그중 높은 에너지를 갖는 분자가 증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액체의 분자들을 한데 묶어 두는 분자 간 인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액체의 표면에 있는 분자들은 각각 다른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그중 운동 에너지가 큰 분자들은 분자 간 인력을 극복하고 증발하여 기체 상태로 변한다. 하지만 기체의 분자들 일부는 반대로 에너지를 잃고 응결되어 액체로 변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의 초기에는 액체의 표면을 떠나는 분자의 수가 돌아오는 수보다 훨씬 많으나, 기체의 분자 수 증가로 기체의 압력 또한 높아져 액체의 표면에서 응결되는 분자 수 또한 증가하게 된다. 결국 분자들의 증발 또는 응결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한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 액체의 증발 속도와 기체의 응결 속도는 같아지게 되어 거시적으로 평형을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의 압력과 온도 조건들이 상평형 그림의 증기 압력 곡선이 된다.

한편, 위 <그림>에서 고체와 기체 사이의 상 경계를 따라 가면 두 선이 **㉠** 분기하는 점이 나타난다. 이 점은 세 개의 상이 평형을 이루며 공존하는 상태로, **㉡** 삼중점(triple point)이라고 한다. 그리고 액체와 기체 사이의 상 경계를 따라가면 선이 끝나는 임계점을 만나는데, 이때의 온도를 임계 온도, 압력을 임계 압력이라 한다. 임계 온도는 아무리 압력을 높여도 기체가 액화되지 않는 온도이며, 임계 압력은 아무리 온도를 높여도 액체가 증발되지 않는 압력으로, 임계점에서 두 상은 액체도 기체도 아닌 초임계 유체를 **㉢** 형성한다.

* 단한계: 주위와 물질 교환을 하지 않으나 에너지 교환은 할 수 있는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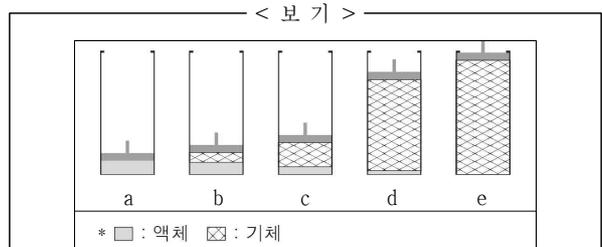
[A]

10. <보기>와 윗글의 <그림>을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답률: 60.80% / 7위)



- ① 이산화 탄소는 물에 비해 임계점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압력과 온도 조건에 있군.
- ② 이산화 탄소는 물과 달리 일반적인 대기 압력 수준에서 액체로 존재할 수 없겠군.
- ③ 물과 이산화 탄소는 동일한 압력 조건에서 고체, 액체, 기체 중 기체가 높은 상 물질이겠군.
- ④ 물은 이산화 탄소와 달리 온도가 높아질수록 고체와 액체 간 평형을 이루는 압력이 낮아지겠군.
- ⑤ 물과 이산화 탄소는 어떤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도 고체에서 기체로의 상변화가 일어날 수 없겠군.

11. [A]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오답률: 51.58% / 14위)



위 그림은 액체가 담긴 밀폐된 용기의 피스톤을 위로 당기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의 a~e는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의 감소에 따라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액체에서 기체로의 전환을 보여 준다. a에서 e의 순서로 진행되며, a는 액체 상태, c만 상평형 상태, e는 기체 상태이다.

- ① a에서 e까지의 과정에서 액체의 분자 수는 감소하고 기체의 분자 수는 증가할 것이다.
- ② b는 액체의 표면을 떠나는 분자의 수가 기체에서 액체로 돌아오는 분자의 수보다 많은 상태일 것이다.
- ③ c는 액체의 분자가 증발하는 속도와 기체의 분자가 응결하는 속도가 같은 상태일 것이다.
- ④ c에서 e까지의 과정에서 액체의 분자와 기체의 분자는 모두 분자 간 인력이 커질 것이다.
- ⑤ e는 a에 비해 분자 간 평균적인 거리가 먼 상태일 것이다.

[12 ~ 1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내용> 남파 간첩으로 체포되어 21년을 복역하고 작고한 작은할아버지의 생애를 석사 논문의 주제로 삼은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과거사를 묻는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반응을 이끌어내려 노력하는 한편, 다른 가족에게서도 작은할아버지의 행적에 관한 증언을 듣고 기록한다.

(가) 작은할아버지의 생애와 그분이 살았던 시대를 두고 석사 논문을 쓰겠다는 마음이 애초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분이 설령 남이라 해도 분단 현실에 희생양으로서 당신 생애가 관심을 끌 만했는데, 제삼자가 아닌 바로 우리 집안 어른이었다. 논문 부제로 붙인 ‘분단 시대 어느 사회주의자의 생애’에 합당한, 고난으로 점철된 그분 생애는 누구든 정리해 볼 만한 값어치가 있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남북 화해 물꼬가 헛별 정객이란 이름으로 트이자 북한에 대해 거리낌 없이 말해도 좋을 만큼 시대가 달라졌다. 그러자 작은할아버지는 유명 작가의 면을 벗고 지하에서 지상의 가족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명절이나 집안 김홍사로 가족이 모이는 날이면 그분에 대한 일화가 이제 쉬쉬하지 않고 어른들 입에 자연스럽게 오르내리게 되었다. 작년 할머니 기일 때였다. 큰댁 식구, 고모네 식구에, 우리 식구가 할아버지 댁에 모이니 어린 조카들까지 합쳐 스물세에 이르렀다. 속칭 ‘1·4 후퇴’ 때 월남한 조부모 대 아래 50년 사이 후손이 그만큼 가지를 쳤던 것이다. 그날도 추모 예배 끝에 작은할아버지에 관한 일화가 어른들 입에서 오르내렸다. 「할아버지, 이제 새 천 년 이십일 세기가 시작됐는데 올해부터 우리 집안 쪽에서라도 작은할아버지 기일을 찾아 줘야 되겠습니까? 그날 오늘처럼 가족이 모여 추모 예배를 보면 어때요?」 큰집 준식 형이 말을 꺼냈다. 「지금 너 뉘겠니? 대학 때 속깨나 찍어더니 아직도 뼈뺀 생각을 청산 못했군. 뭐라구, 작은아버지 제사? 말이나 되는 소리니? 그 양반 제사를 우리가 왜 지내? 그 양반이 집안을 축대밭으로 만들었는데. 아버지도 그럴 맘 없었지만, 난 반대야. 무슨 낱짝 있다구 우리 집 제삿밥 얻어먹어? 그 양반 마당인들 기독교식 제삿밥 먹으려 들었어?」 술이 거나해진 큰아버지가 당신 만아들인 준식 형을 샅대질하며 꾸짖었다.

(나) 1950년 12월 초순이었다. 제비 떼같이 창공에 뜬 폭격기 편대가 몰아치는 눈보라를 뚫고 엄청난 양의 폭탄을 퍼붓고 있었다. 폭탄이 떨어지는 지점마다 불티가 하늘로 치솟았다. 종전 전 일본 땅에다 그랬듯 미제가 원자 폭탄을 투하할 거란 소문이 거짓말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고, 봄이 와도 저 멧엔 풀인들 싹을 틔우겠냐 싶었다. 나는 고향 땅에 남겨 둔 부모님과 처자식 걱정이 태산 같았다. 전쟁이 나도 나는 인민군에 소집되지 않았고, 개천역 저탄장 작업소에서 일했는데, 일제 때 유경험자라 개천광산 석탄 채굴 노동자로 작업터를 바꾸었다. 열댓 살짜리까지 전선으로 빠지고 40대 장정이 대부분을 차지한 광산 노동자들은 전쟁 와중에도 전선에서 쓸 석탄 채굴에 여념이 없었다. 전황이 기울어 평양을 남쪽에 내쫓다는 소식이 광산까지 전해지기가 10월 초, 탄광이 폐쇄되어 읍내 집으로 돌아오자 아니나 다를까, 뒤이어 국군과 연합군이 읍내를 점령했다. 뒤따라 들어온 치안대, 한청(대한청년단), 청방(청년방위대)이 좌익 분자 색출에 혈안이 되어 꼬투리가 잡혔다 하면 하루를 못 넘겨 처형되거나 제 물힐 구덩이 제가 파서 생매장 당했다.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순순간에 사라지던 험한 시절이라 청년노동자동맹 분소 부부장이었던 나로서는 우선 살아남자면 우익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할 처지였다. 중공군

참전 소식이 들리고 마침 개천읍에 주둔해 있던 국군 부대 병기창이 철수를 서두르며 노무자를 징발하기에 나는 거기에 자원했다. 부대로 찾아온 어머니가 내게, 너들 식구만이라도 남으로 내려가 몸을 피하라고 아내에게 이르렀다 했는데, 아내와 젖먹이 딸린 자식 넷이 읍내에 남아 있는지 피난길에 나섰는지 알 수 없었다. 「너들 식구는 피난 나서더래두, 우리 양주야 살 만큼 산 목숨 아닌가. 그러니 배가 앞산만 한 광수 아내와 우리 양주는 여기 남을래. 광수가 살아서 집 찾아 돌아올 날까지 대장간을 지켜야지.」 하던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줄곧 귓바퀴에서 맴돌았다. 나는 개털모자를 눌러썼는데 트럭이 속력을 내자 몰아치는 눈바람에 안면이 내 살 같지 않았고 무명으로 감싼 발톱은 집게로 뿔뿔 아렸다. 그해 겨울, 결국 발가락 두 개가 동상으로 떨어져 나갔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시절이었다. 늙고 할 일 없으니 자나깨나 그 시절 생각이다. 손자 녀석까지 남의 심사를 박박 긁으니 초조함과 불안이 온몸을 옥죄어 온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붙이고 일렁이는 **[물결]**을 본다. 「여보, 봉창 밖이 왜 저렇게 환해요? 불이 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죽은 아내 목소리가 들린다. 중손골로 찾아온 만이 녀석과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난 뒤 화가 가라앉지 않아 콧가 불리 술이나 한잔 하려 아내에게 술상을 차리라고 말한 뒤라, 나는 깜짝 놀라 뒷봉창을 보았다. 봉창이 흰했다. 나는 방문을 열고 뛰어나갔다. 변소 뒤 균용 천막으로 덮여 둔 폐지더미에서 불길의 일고 있었다. 덩이덩이 쌓여 둔 폐지더미가 바람을 타고 불길에 휩싸였다. 「여보, 어떡해요. 작은서방님이…….」 뒤쫓아 나온 아내가 울먹었다. 폐지는 다 타 버리더라도 광수부터 살려야 했다. 나는 정신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어들었다.

기침이 쏟아지고 갑자기 숨길이 가쁘다. 더 앉아 배겨 낼 수가 없다. 나는 의자에서 기우뚱 일어난다. 옷걸이에 걸린 10년 넘게 입어온 점퍼를 걸친다. 할아버지, 어디 가지게요? 하며 손자 녀석이 며늘애와 함께 빵을 먹다 돌아본다. 나는 대답 없이 현관으로 가서 테두리에 인조털 달린 겨울용 점령 고무신을 신는다.

(다) 불길에 뛰어들어 아버지가 연기에 질식해 까무러친 작은아버지를 업구 수지면 소재 민간 병원으로 십 리 길을 뛰었지. (질문: 병원에 입원한다면 작은할아버지 신분이 밝혀질 텐데, 할아버지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었는지요? 하고 내가 물었다.) 아버지 생각으론 작은아버지를 우선 살려 놓구 봐야겠다는 마음부터 앞섰겠지. 화급한 마음에, 의사가 만약 신원을 대라면 폐지 집하장에서 일하는 일꾼이라고 둘러대려 했거나 말이야. 줄도했던 작은아버지는 하루 만에 깨어났으나 숨길만 불었을 뿐 호스로 음식물을 공급해야 할 만큼 목구멍이 화기로 상했구 얼굴과 손발은 온통 붓대에 감겨 있었으니 병원에서 쉬 빼낼 수가 있어야지. 이튿날, 소방관과 경찰이 들이닥쳐 화재 원인을 캐구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파악하던 중 일꾼 하나가, 주인어른이 불더미에서 사람을 구해 내서 업구 갔다는 말을 흘려, 작은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들통난 거지. 그제야 아버지가 아빨쌌으나 이미 때가 늦었어. 작은아버지의 위조된 도민증이 들통난 거야. 박 정권이 들어선 초기라 당시 시국이 얼마나 살벌했는지 알아? 전국 깡패 소탕령이 내려져 잡아들이는 족족 국토 개발 사업장에 보내구, 호구 조사가 철저했으니……. 수원경찰서에서 정보부로 옮겨 가며 신문받을 동안 아버지두 고문을 혹독히 당하셨나 봐.

- 김원일, 「손풍금」 -

12. <보기>의 [A]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오답률: 60.22% / 8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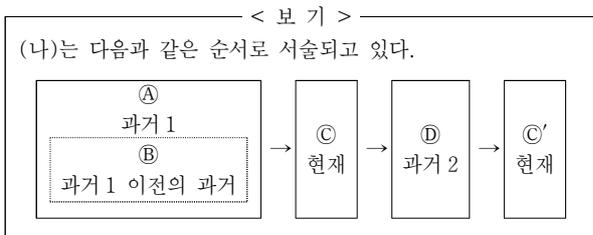
< 보 기 >

이 작품에서는 장별로 서술자가 교차되고 다양한 인물의 진술이 증언 기록의 방식으로 제시됨으로써 ‘과거의 기억에 대한 다중 진술’이 구현되고 있다. 서술자 혹은 인물의 질문과 탐색, 침묵과 진술을 통해 과거에 대한 정보가 등장인물이나 작품 외부의 독자에게 전달되고 축적되는 과정에서 가족의 과거사가 드러난다. (가)와 (다)의 서술자인 손자, (나)의 서술자인 할아버지, (다)에 기록된 증언의 제공자인 아버지를 각각 ㉠, ㉡, ㉢라고 할 때, 윗글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A]

- ① ‘손자 녀석까지 남의 심사를 박박 긁으니’라는 ㉠의 반응은 ㉡의 탐색이 쉽지 않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 ② ㉡의 내면 서술은 가족의 과거와 관련된 정보를 작품 외부의 독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 ③ ㉢가 ‘초조함과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의 진술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 ④ ㉢가 추측을 통해 사건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의 진술과 ㉠의 기억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발견되고 있다.
- ⑤ ㉡가 탐색하고자 하는 가족의 과거사는 ㉢의 진술을 통해 그 일면이 드러나고 있다.

13.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답률: 59.24% / 9위)



- ① ㉡에는 전쟁 발발 이후부터 ㉠에 이르기까지 서술자가 겪은 일이 제시되어 있다.
- ②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기점으로 서술자의 생각이 ㉡에서 ㉠로 돌아오고 있다.
- ③ ‘늙고 할 일 없으니 자나깨나 그 시절 생각이다.’라는 언급은 ㉢와 ㉢'에서의 서술자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 ④ ㉣가 ㉠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음은 ㉠와 ㉣에 제시된 시대적 배경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⑤ ㉠와 ㉣는 과거 시제로, ㉢와 ㉢'는 현재 시제로 서술되어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이를 서술하는 시점이 구분되고 있다.

[14 ~ 1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황매 시절 떠난 이별 만학단풍 늦었으니
상사일념 무한사는 저도 나를 그리려니
굳은 언약 깊은 정을 낸들 어이 잊었을까
인간의 일이 많고 조물이 시기런지
삼하삼추 지나가고 낙목한천 또 되었네
운산이 멀었으니 소식인들 쉬울손가
대인난* 긴 한숨의 눈물은 몇 때런고
홍중*의 불이 나니 구회간장 다 타 간다
인간의 물로 못 끄는 불이라 없건마는

㉠ 내 가슴 태우는 불은 물로도 어이 못 끄는고

자네 사정 내가 알고 내 사정 자네 아니
㉡ 세우사창 저문 날과 소소상풍 송안성*의
상사몽 놀라 깨여 맥맥히 생각하니
방춘화류 좋은 시절 강루사찰 경계* 좇아

(B) 일부일 월부월*의 운우지락 협흡*할 제
청산녹수 증인 두고 차생백년 서로 맹세
못 보아도 병이 되고 더디 와도 성화로세
오는 글발 가는 사연 자자획획 다정더니
엇지타 한 별리가 역여조기* 어려워라

- 이세보, 「상사별곡」 -

- * 대인난: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안타까움과 괴로움.
- * 홍중: 마음속.
- * 송안성: 기러기 울음소리.
- * 경계: 정치.
- * 일부일 월부월: 날마다 달마다.
- * 협흡: 화목하게 사귀.
- * 역여조기: 그리는 정이 간절함.

(나)

한라산이 시력 범위 안에 들어와 서기는 실상 추자도에서도
훔석 이전이었겠는데 새벽에 추자도를 지내 놓고 한숨 실컷
자고 나서도 날이 새인 후에야 ㉠ 해면 우에 덩그렇게 선연히
허우대도 끄적어도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눈물이 절
로 솟도록 반갑지 않으오리까. 한눈에 정이 들어 즉시 몸을 맡
기도록 믿음직한 가슴과 팔을 벌리는 산이외다. 동방화축
에 초야를 새우을 제 바로 모신 님이 수줍고 부끄럽고 아직
설어 겨울 뿐일러니 그 님의 그 얼굴 그 모습이사 동창이 아
주 회자 솟는 해를 품은 듯 와락 사랑스럽게 뵈임는 신부와 같
이 나는 이날 아침에 평생 그리던 산을 바로 모시었습니다. 이
즈음 슬프지도 않은 그늘이 마음에 내려앉아 좀처럼 눈물을
흘린 일이 없었기에 인제는 나의 심정의 표피가 호두 껍질같
이 오롯이 굳어지고 말았는가 하고 남저지* 청춘을 아주 단념
하였던 것이 제주도 어구 가까이 온 이날 이른 아침에 불현듯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오리까. 동행인 영광과 현구도 푸른
언덕까지 헤엄쳐 오르려는 물새처럼이나 설레고 푸덕거리는
것이요 좋아라 그러는 것이겠지마는 갑판 위로 뛰어 돌아다
니며 소년처럼 회살대는 것이요, 뻑뻑거리는 것이었습니다.
㉡ 산이 얼마나 장엄하고도 너그럽고 초연하고도 다정한 것이
며 준열하고도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오리까. 우리의 모륙
(母陸)이 이다지도 절승*한 도선(徒船)을 달고 엄연히 대륙에
기항*하였던 것을 새삼스럽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해면에는 아직도 야색(夜色)이 깨이지는 않았는지 물결이 깨

운한 아침 얼굴을 보이지 않았건만 ㉠ 한라산 이마는 아름답한 자줏빛이며 옅은 보랏빛으로 물들은 것이 더욱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다. 필연코 바다 저쪽의 아침 해를 미리 맞음인가 하였으니 허리에 밤 잔 구름을 두르고도 그리고도 그 우에 다시 현출히 솟아오릅니다. 배가 제주 성내 앞 측향 안으로 들어가 자 큼직한 목선이 선부들을 데리고 마중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소나기 한줄금을 맞으며 우리는 목선으로 옮겨 타고 성내로 상륙하였습니다. 흙은 검고 돌은 엷었는데 돌이 흙보다 더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고도 사람의 자색은 희고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소나기 한줄금은 금시에 개이고 멀리도 밤을 새워 와서 맞은 햇살이 해협 일면에 부챗살 퍼듯 하였습니다.

- 정지용, 「다도해기 5-일편낙토」 -

- * 남저지: 나머지.
- * 절승: 아주 뛰어난게 좋은 경치.
- * 기항: 항해중인 배가 목적지가 아닌 항구에 잠시 들르는 것.

14.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답률: 67.61% / 3위)

- ① 운명을 수용하는 순응적 자세가 확인된다.
- ② 현재의 삶에 대한 반성적 태도가 부각된다.
- ③ 내용 전개 과정에서 시간의 흐름이 포착된다.
- ④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이 표출된다.
- ⑤ 상설의 경험을 극복하려는 의지적 자세가 나타난다.

15.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오답률: 67.42% / 4위)

— < 보 기 > —

(가)는 두 명의 화자가 각자 자신의 사연을 차례로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A]와 [B]로 구분된다.

- ① [A]의 '황매 시절 떠난 이별'과 [B]의 '엇지타 한 별리'에서 두 화자의 처지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A]의 '저도 나를 그리려니'와 [B]의 '자네 사정 내가 알고 내 사정 자네 아니'를 통해 두 화자가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A]의 '굳은 언약 깊은 정'과 [B]의 '차생백년 서로 맹세'에서 두 화자가 임파의 사랑에 대해 지냈을 기대감을 떠올릴 수 있다.
- ④ [A]의 화자는 '소식'이 전달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B]의 화자는 '오는 글발'이 끊긴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출하고 있다.
- ⑤ [A]의 '흉중의 불'과 [B]의 '병'은 두 화자가 상사로 인해 느끼는 괴로움을 의미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